

철저한 모돈관리로 MSY 20두 유지하는 경기 파주 한아름 농장



글 · 사진 - 박기진

2007년은 황금돼지해라고 매스컴에서 유난히 돼지가 많이 집중되었고 정신없이 지나서인지 어 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국내 양돈산업은 소모성 질환, 분뇨처리문제, 사료값 폭등 등의 대내적 문제와 최근 개방화시대에 따라 돈가의 불안정화 등의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런 어려움속에서 우리 양돈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질의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소모성 질환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 파주의 '한아름 농장'은 최근 7년간 평균 MSY 21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MSY는 12.8두, 미국은 17두, 일본은 17.6두, 덴마크는 21.4두라는 보고자료에 비추어 보면

양돈선진국에도 부럽지 않은 성적이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철저한 전산관리와 손익계산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기 파주의 한아름 농장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1. 모돈 120두 규모의 일괄 사육 농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한아름 농장은 모돈 120두 규모를 일괄사육하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딱 찬 느낌이었다. 한아름 농장의 김갑진 사장(43)은 1985년 모돈 3마리로 양돈업의 첫발을 내딛어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다. 농장규모는 총 1,200평 규모의 건평 350평정도이며 돈사는 스크레파시 설이다. 분뇨처리는 7백톤의 액비저장조를 갖추고 인근 경종농가에 직접 공급



◀ 포유자돈의 충분한 급수와 신선한 음수 공급을 위해 급수기를 따로 설치하였다.

▶ 입질사료를 바닥에 뿌려 포유자돈이 사료를 가지고 장난함으로서 사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반경 2Km이내에는 양돈장이 없어 지역적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질병차단이 수월하다.

2. “모든 경제적 이득은 모돈관리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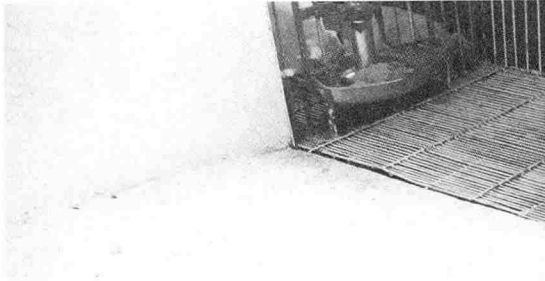
한아름 농장이 다른 신축이나 개보수된 농장처럼 시설이나 환경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김갑진 사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함께 동행한 김근필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판매부장은 “신축된 깨끗한 환경속의 돈사는 3~4년이 지나야 그 농장의 진짜 성적을 알 수 있다.”며 “한아름 농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갑진 사장의 사양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양관리요소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사양관리는 바로 “모돈은 사람의 심장이자 생산공장”이라는 점이다. 김갑진 사장은 이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모든 농장의 성적은 모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유무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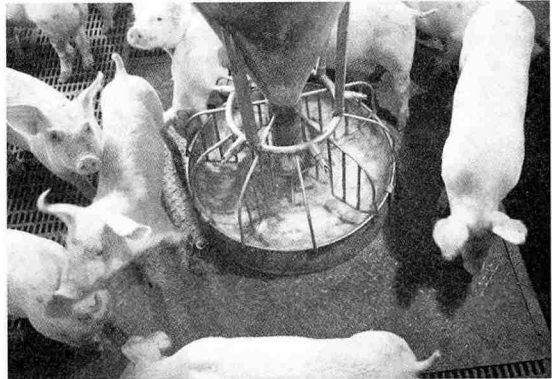
한아름농장은 특히 하절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통계적으로 돈가가 높은 5,6월에 집중적인 출하를 한다고 한다.

김갑진 사장은 “하절기에는 중부 적기도 중요하지만 모돈을 시원하게 해줌으로써 더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하절기에도 수태율을 유지시켜 줌으로서 정상적인 출하가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밀사를 피하고 각 사이클별로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농장에 수익을 가져온다.”고 하절기 관리를 강조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하절기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절기 관리가 동절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한아름 농장은 이 같은 이유로 하절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포유모돈이 물사료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모돈의 개별송풍장치는 물론 제빙기 설치로 사료와 얼음을 혼합하여 급여하며, 하절기에는 돈사내 온도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퇴근을 하지 않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한다.



▲ 질병예방을 위해 빈돈방은 항상 석회석도포를 실시하고 있다.



▲ 이유자돈사에는 사료급이기 밑에 철망을 깔아 사료허실 방지 및 사료발효로 인한 가스발생도 억제하고 있다.

3. 모든 시스템, 손익분기점 데이터화

이러한 하절기 관리와 함께 한아름농장은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기본 사양관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특히 모돈의 영양관리를 위해 모돈급여 프로그램을 지키며 모돈 체형에 따라 사료량을 일일이 체크해 급여하고 있다. 김갑진 사장은 “모돈의 산차관리와 체형관리는 모돈의 강건성을 증대시키고 이유후 재귀발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만 및 포유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돈 강건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모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모돈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료급여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한 개체별로 전산관리하여 사료량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사양관리를 위해 당연히 해야하지만 알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자돈의 생시, 이유체중 체크이다. 김갑진 사장은 개체별로 생시체중과 이유체중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구간별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 있다.

4. 철저한 전산 기록 관리

한아름 농장의 또하나의 특징은 농장전체의 모

든 것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의 전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관리 프로그램은 농장의 기록관리를 더욱 체계화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농장의 관리에 있어서 한 마리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갑진 사장은 “전산관리를 토대로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농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이러한 모든 전산관리와 함께 발정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발정 증상을 확인하고 교배적기에 번식이 가능해 성공적인 수태와 높은 산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전산관리가 농장의 성과와 직결됨을 강조했다.



▲ (사진 좌측부터) 김근필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지역부장, 한아름농장의 김갑진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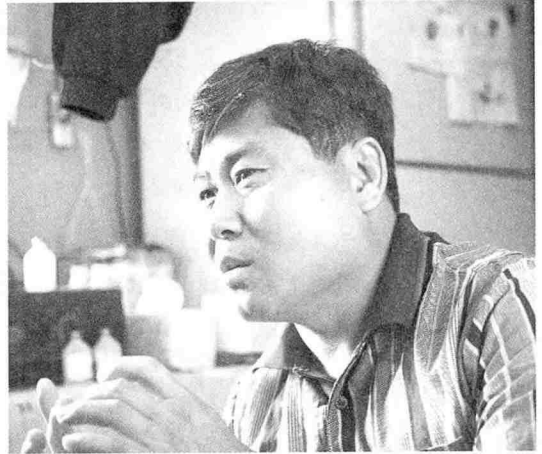
또한 전산관리는 농장을 경영하는데 있어 미래의 대한 준비나 계획을 생각 있게 함으로써 비용, 수익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김갑진 사장은 “아직까지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요소를 잃는 농장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손익분기점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양관리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고 밝혔다. 특히 김갑진 사장은 “이러한 부분부분에 시스템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장이 늘어나야 양돈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5. 중소농장 협력을 통한 만나포크 출시

김갑진 사장은 중소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파주·고양 인근의 13농가와 함께 만나포크라는 브랜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만나포크는 퓨리나 본사의 지원과 퓨리나 북파주 특약점의 주도로 경기 성남의 ‘우리미트넷’이라는 육가공업체에 납품함으로써 판매처 확보를 통한 수익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월 1,800~2,000두를 출하하는 만나포크는 중소 농장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기호의 맞는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만나포크영농조합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갑진 사장은 “지금은 작은 규모이지만 광역 브랜드화 발전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꿈을 내뱉었다.

6. 농장을 나서며

한아름 농장은 다른 수도권 지역의 농장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도시화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지역은 지자체 특성상 축사 신축은 물론 증축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높



▲ 김갑진 사장은 평균이상의 높은 성적유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경영상 어려운 적은 없다고 한다.

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김갑진 사장은 “지금처럼 경영상 어려운 적은 없었다”며 “예전에는 생산비 자체가 지금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 가하락에도 버틸 수 있었지만 현재나 미래는 생산비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양돈업은 버린 사업이라는 소외감에 미래가 밝지 않다.”라며 이제는 양돈농가 자체에서도 정부에서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돼지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아름 농장은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분석, 기본에 충실한 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아름 농장의 김갑진 사장과 이야기하며 필자 역시 양돈산업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양돈산업의 자부심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갑진 사장이 느끼고 있는 양돈산업의 소외감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전국의 모든 양돈경영자가 성공하길 기원했다. **양돈**